

#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기계설비산업의 창조적 발전 역할 기대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7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강기호)는 지난 1월 7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강기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노환용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회장, 박종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최상홍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 정차수 설비엔지니어링협회의회 회장, 정승일·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전임회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양보흡·정석래 LH공사 처장 등 정부 및 유관단체장과

내외귀빈 약 500여명의 기계설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올미년 양띠해의 희망찬 출발을 기원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인사회는 서승직 윤리위원장의 기계설비인 윤리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계설비인 포상 수여,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 “연구원,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 기대”



신년사를 발표하는 강기호 회장

강기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건축물이나 모든 시설물의 오장육부를 설계하고 설치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는 기술이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국가 전체에너지의 20% 이상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 환경 기술산업이다”면

서 “기계설비 전문기술자가 건축물의 동반설계자로 참여해서 건축디자인과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이 융복합 되어야 녹색건축물 실현이 가능하며, 하루 빨리 첨단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한국형 녹색건축설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저탄소 녹색시장을 리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호 회장은 또한 “국토부가 발주해서 대한설비공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설비최적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능형 건축설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녹색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설비 기준 제정뿐 아니라, 설비설계부터 시공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위한 설비산업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설립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의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원 설립을 위해 수고하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여러분, 유호선 준비위원장과 초대원장을 맡은 이연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인들의 상호 협력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케익 커팅 (왼쪽부터 노환용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회장, 박종일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최상홍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 강기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차수 설비엔지니어링협회의 회장)

## 우수 기계설비인 포상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계설비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평소 헌신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해 설비업계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모범적인 산학협동으로 기계설비분야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강석대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전임회장에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기계설비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기계설비인 위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성락 서울특별시 기술조사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기계설비발전과 경제력 제고 및 산학협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절약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로 오명도 대한설비공학회 전임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변운섭 (주)우원엠앤이 부사장, 박경열 남동전동기(주) 사장에게 포상장을 수여했다. 



기계설비산업분야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계설비인 시상  
 (왼쪽 사진부터 △공로상 강석대 기단련 전임회장 △감사장 이성락 서울특별시 기술조사팀장  
 △포상장 오명도 대한설비공학회 전임회장, 변운섭 (주)우원엠앤이 부사장, 박경열 남동전동기(주) 사장)

### ▼ 포상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공로상	강석대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전임회장 (우양기건 회장)
감사장	이성락	서울특별시 기술조사팀장
포상장	오명도	대한설비공학회 전임회장 (서울시립대 교수)
	변운섭	(주)우원엠앤이 부사장
	박경열	남동전동기(주) 사장

# “국민으로부터 건설산업 신뢰 회복” 다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5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네 번째, 이상일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김경식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신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건설단체장 및 건설 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최삼규 회장



정홍원 총리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미년 새해는 건설산업이 재도약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건설산업은 올해 해외진출 50주년을 맞아 해외건설 수주누계 7,000억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업계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과 부조리를 일소해 국민으로부터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난해 건설기업들은 중동정세 불안, 경제성장을 둔화, 건설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 두 번째인 660억



건설산업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시루떡 커팅식 (사진 가운데 이상일 회장)

달러의 해외수주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맞춤형 금융지원과 한국형 신도시모델 수출, 우수한 건설기술 수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회장은 “지난해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온기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가 만들어주는 일감에만 의존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경제위기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으로 건배제의와 신년덕담을 했으며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함께 신년 축하 시루떡 커팅식을 가졌다. 이후 이상일 회장은 정홍원 총리, 최삼규 회장을 비롯한 정계 및 건설단체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기원했다. 🍌